

처음부터 끝까지 한달음에 읽는 사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각종 사전들 출간

사전의 단행본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문 편집은 사전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외양이나 활용방법 측면에서 단행본과 다를 바 없는 책이 부쩍 늘고 있다. 맨 첫장부터 읽어나가도 무방한 것이 이들 '단행본형 사전'의 특징이다. 이들은 크게 말들이 지닌 의미를 풍자로 풀어낸 '풍자사전' 류와 상식백과, 전문사전류 등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문화현상에 대한 반어법적 해석

《그로테스크하고 아라베스크한 문화의 백과사전》(가지않은길)은 '풍자사전'의 성격이 짙다. 여기에 사전(事典)과 사전(辭典)의 차이는 있다. 《...문화의 백과사전》이 여러가지 사향을 다루고 있다면 '풍자사전'은 날 말을 모아 풀이한 '말광'의 형식을 띠며, 기존 관념에 대한 역설이 통렬하다.

엠브로스 비어스(1842~1914?)의 《악마의 사전》(우신사, 1982)에 의하면, '사서편찬자'는 "일정한 언어의 발달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단계를 기록한다고 하면서, 실은 가급적 그 성장을 방해하며, 언어의 유연성을 마비시키고, 그 조직을 기계화시키려는 유해로운 존재"다. 따라서 《악마의 사전》의 편찬자는 사법권 같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며, 언어의 자유로운 성장을 도모한다.

《... 문화의 백과사전》의 '직계조상'은 '반어법의 잔치상'이었던 <X사전>이라고 볼 수 있다. 《리뷰》 창간호(1994 겨울)에 처음 선보인 <X사전>은 언어(특히 문화 관련 용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사회 상황에 대한 재해석을 유도했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공윤: 공연윤리위원회의 약칭. 영화를 비롯한 기타 대중문화 생산물들의 재미있고 자극적인 내용을 회원들끼리만 돌려보기 위해 만든 폐쇄적인 소규모 결사체. 이들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이매진》의 기자를 지낸 이명석씨의 《... 백과사전》은 <X사전>과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

"외형상으로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집단 생활과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특수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흔히 체중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체중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단행본처럼 처음부터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꾸민 각종 사전들이 독자의 흥미를 끌어당기고 있다. 새로운 해석을 통해 사회상황에 대한 재해석을 유도한다거나, 문화시대에 알아야 할 개념의 유래와 역사를 설명하기도 하고 소설·시·명작 등 특정 분야 전문사전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시력이 특별히 나쁘거나, 난시이거나, 평발이거나, 빈혈이거나, 각종의 디스크를 앓고 있다. 단 이런 증세는 이십대 초반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에는 자연 완치되어 정상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해나간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징집 신체 검사 직전에 발병했다가, 신체검사 직후에 완치된다." 다른 말로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 다름 아닌 '고위층 자제'를 일컫는다.

제목으로만 봐서는 《그로테스크하고 아라베스크한 문화의 백과사전》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1996)이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저승의 백과사전》(1997, 이상 열린책들)에 더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열린책들의 사전은 말 그대로 백과사전이다. 반어법과는 무관하게 지식의 전달에 충실하다. 앞의 책은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179항목에 걸쳐 서술한 과학에세이이고, 나중 책 역시 프랑스 작가 마르크 볼링스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와 단어를 정리한 책이다.

최근 출간된 《지식 속의 지식 2730》과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는 열린책들이 펴낸 백과사전의 확대판이다. 문화칼럼니스트 박영수씨의 《지식 속의 지식 2730》(석필)은 정보화시대에 꼭 알아야 할 주요 사물·개념·용어의 유래와 역사를 설명한 작은 백과사전이다. 동·서양의 풍속과 관습의 유래를 어원과 함께 설명했고, 세계적인 문화현상과 아울러 우리 문화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지식 속의 지식 2730》은 3년전 출간된 《만물유래사전》의 확대 증보판이다. 원고 분량은 기존판의 3배가 넘는 2백자 원고지 7천여장에 이르고, 2730항목에 달하는 표제어의 수도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사전은 유래사전이나 문화풍속사전 말고도 여러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시대 배경을 밝혀주는 고사성어사전, 유명 브랜드의 일화를 알려주는 브랜드 사전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단행본처럼 처음부터 읽는 사전

피에르 제르마의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하늘연못)는 제목이 시사하듯 유래사전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672가지 만물의 역사를 다뤘다. 사물·제도·사상의 기원을 전문적·기술적 측면보다 탄생 및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춰 서술했다. 저자의 국적을 따라서 프랑스를 기준으로 삼은 내용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프로레슬링(catch)'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catch as catch can)'에서 왔다고 설명하면서도 프랑스와의 관련사항을 중요시한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레슬링 그레코로망형에서 우수한 미국의 헨리 디글레인이 1931년 프로레슬링을 프랑스에 도입했다."

전문사전의 단행본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문학명작사전》(한길사, 1991)은 20세

기 초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나온 소설 중에서 화제작 150편을 골라 줄거리와 문학사적 의미를 기술했다. 《현대문학의 근본개념사전》(솔출판사, 1996)은 문학의 근본개념을 통시적·공시적으로 치밀하게 규명해내 '하나의 문학사'라는 평가를 받는 역저다. 두권의 문학입문서는 사전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단행본처럼 맨처음부터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독서방법이다. 《라캉 정신분석사전》(인간사랑) 역시 처음부터 읽어나가는 것이 편하도록 만들었다.

고려대출판부가 펴낸 《소설어사전》을 첫장부터 읽는 것은 일반독자에게 부질 없는 일이다. 하지만 소설가 지망생은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소설이란 건축물에서 소설어는 벽돌이고 흙이며 통나무"이기 때문이다. 《소설어사전》은 이인직의 《혈의누》(1906)에서 전경린의 《평범한 물방울 무늬 원피스에 관한 이야기》(1995)에 이르는 여러 작가의 작품에서 어휘를 채록했다. 여기에는 분단 이후 북한작품도 포함된다.

집중적인 채록 대상이 된 작품은 우리말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한 작가의 소설들이다. 《소설어사전》은 홍명희의 《임격정》, 박경리의 《토지》, 조정래의 《태백산맥》, 이문구의 《관촌수필》, 채만식의 《탁류》, 염상섭의 《삼대》 등에 적지 않은 신세를 졌다. 《소설어사전》은 지난해 출간된 《시어사전》(고려대 출판부)과 한쌍을 이룬다. <최성일>